

‘경성 좌담회’ 다시 읽기

1. 하나의 이벤트, 두 개의 텍스트-1938년 ‘경성 좌담회’

1938년 10월 ‘내지’의 『문학계』 동인 林房雄와 村山知義는 秋田雨雀와 장혁주와 함께 만주로 향하는 도중에 경성을 들러 조선 문인들과의 좌담회에 참석했다.¹⁾ 경성 좌담회는 『경성일보』(1938.11.29.~12.18)와 『문학계』(1939.1)에 각각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와 「조선문화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하나의 이벤트가 『경성일보』 편집자(학예부) 판본과 『문학계』 편집자 판본이라는 두 개의 텍스트로 존재하게 되었다. 조선과 ‘내지’라는 담론 장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두 텍스트 사이의 미묘한 차이와 균열을 읽어내는 일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찍이 김윤식이 『경성일보』의 판본을 『문학계』가 전재(轉載)한 것이라 지적한 이후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²⁾ 그 차이가 주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³⁾ 그런데 그 차이의 논거는 『경성일보』의 판본이 『문학계』 판본보다 선행한 것이며, 또 전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본으로 ‘내지’의 관점에서 수정 가필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문학계』 판본이 피식민자와 ‘내지문인’ 사이의 긴장감을 무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즉, 두 판본의 차이를 피식민자(조선문인)와 식민자(‘내지인’) 사이의 긴장 구도로 읽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두 가지 논거를 부정하는 가설을 세운다면, 두 판본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논의는 달라질 수 있다. 과연 『경성일보』 판본을 저본으로 『문학계』 판본이 만들어진 것일까. 또한 경성 좌담회를 피식민자(조선문인)와 식민자(‘내지인’) 사이의 구도로 읽는 것이 옳은가. 먼저 후자의 경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경성일보』가 피식민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과연 충실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명백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경성 좌담회의 구도에 주목하면서 무엇보다 그 이벤트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 주로 재론코자 한다.

『문학계』 판본의 후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수정하여 조선에 보낼 여유가 없었기에 도쿄에 있는 村山 씨를 제외하고는 가필을 청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당시 전신통신의 여건을 생각해볼 때, 10월 하순에 개최한 좌담회를 조선과 ‘내지’의 다수 참석자들에게 교검과 가필을 받아 이듬해 1월호에 온전하고 합의된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기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경성일보』 텍스트에 대한 존재가 전혀 의식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최종 가필자가 村山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성일보』는 11월 29일, 30일, 그리고 12월 2일, 6일, 7일, 8일에 걸쳐 6차례 연재했다. 이렇듯 지면에 수록된 시점에서 보면 경성일보 쪽이 약 1개월 정도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경성일보』 판본을 『문학계』에 전재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 차이에 주목한 논문에서도 『경성일보』의 판본을 ‘내지’의 『문학계』에서 수정 가필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해왔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텍스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텍스트 사이의 선후 문제를 기정사

1) 이하 ‘경성 좌담회’로 약칭.

2) 金允植, 「國民國家の文學觀からみた二重言語創作の問題-解放前における朝鮮作家の日本語による創作について-」, 白川豊訳, 『朝鮮學報』, 第186號, 朝鮮學會, 40쪽. 田村榮章도 구두점이나 한자 사용의 유무 등 약간의 표기 차이를 보일 뿐 일치한다며 김윤식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1939年朝鮮植民地文學の轉換點』, 『日本語文學』20집, 2004)

3) 권나영, 「어긋난 조우와 갈등하는 욕망들의 검열」, 한국학의 세계화 사업단: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혜안, 2007; 신지영, 『不/在의 시대』, 소명출판, 2012.

실화하거나, 그럼으로써 『경성일보』 쪽의 텍스트를 저본으로 『문학계』 쪽이 텍스트화했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두 판본을 살펴보면, 사실 좌담회 중에 『경성일보』와 『문학계』 양측은 각 매체에 이 좌담회를 게재나 소개할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진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선 『경성일보』의 판본에서는 이 신문사의 학예부장 寺田瑛가 모두(冒頭) 발언에서 이 좌담회가 “경성일보로서도 반도 문화에 대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문학계』의 판본에는 寺田의 모두 발언이 소거되었다.⁴⁾ 반면, 林가 좌담회의 정리 발언을 통해 “내지의 『문학계』에 신고자 합니다. 내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습니다”라며 게재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林의 정리 발언도 『경성일보』의 판본에서는 빠져 있다. 그 대신 寺田가 좌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각기 매체에 게재될 것이라는 정보를 상호 소거하고 있다.

각각의 매체에서 서로 누락시킨 이 두 발언의 존재를 통해 각각 좌담회의 의미를 역면 그대로 이해해보자면, 『경성일보』는 “반도를 새로운 인식 아래 바라보게 된 때에” 조선의 문인들을 모아놓고 ‘내지’ 문인들의 발언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문학계』는 조선 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의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건(좌담회)을 두고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서 각기 발행되는 매체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재현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서로의 존재(가능성)를 인지했다고 가정한다면, 모종의 상호 교환에도 불구하고 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야 했으며, 거꾸로 그렇지 않고 무시한 결과라면 동일한 이벤트가 ‘내지’와 조선에서 각각 서로 다른 텍스트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용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일 것이다.

2. 두 매체가 의도한 참석자의 구도

참석자 : 秋田雨雀, 林房雄, 村山知義, 장혁주, 辛島驍(경성제대조교수), 古川兼秀(총독부도서관장) 〓 정지용(시인), 임하(평론가), 유진오(보성교수), 김문집(평론가), 이태준(소설가), 유치진(극작가)

『문학계』는 당시 물결선이 구별을 뜻하는 기호였다는 의도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내지인’측과 조선인측을 물결선으로 구분하고 辛島와 古川 두 재조일본인을 ‘내지인’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별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그 구별에서 장혁주라는 예외적 존재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꼭 인종적 구분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오히려 좌담회의 주제가 조선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을 둘러싼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의 구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또한 사용(문학)언어에 기반한 구분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좌담 주제인 조선문화와 그것을 담당하는 조선 문인들을 보다 가시적으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다음은 앞서 지적했듯이 형식적으로 좌담 주최자가 『문학계』임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경성일보 학예부장 寺田의 존재를 소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辛島에게 발언 기회가 그다지 주어지지 않은 것이나,⁵⁾ 『경성일보』에서는 寺田의 모두

4) 『경성일보』 텍스트에서는 “이번 우리들의 여비는 실은 만주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경성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로 5일이나 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

5) 辛島의 거의 유일한 발언이 실린 『경성일보』 12.2일자의 발언과 『문학계』의 발언 내용을 비교하면, 『경성일보』 발언의 전반부가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에는 ‘조선 작가와의 대화’ 필요성과

발언에서 이 모임의 의의 중 하나로 언급한 古川 도서과장의 발언 기회가 매우 형식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⁶⁾ 그런 점에서 볼 때, 『문학계』의 텍스트에서는 재조일본인의 존재가 희미하다. 좌담회 후반에 총독부 도서과장인 古川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村山, 秋田, 장혁주가 부민관에서 열린 연극강연회 때문에 돌아간 이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좌담회가 사실 조선인 문인들과 총독부 검열담당자의 대화로 축소된다. 그 내용도 비교적 긴 발언에도 불구하고 식상한 조선문화 정체론(停滯論)이나 민도(民度) 타령에 불과한데, 더구나 두 판본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기도 하다.⁷⁾ 그러다 점차 총독부 검열의 실제 상황에 대한 조선문인 측의 진정이 들어오자, 林은 좌담회를 마칠 것을 제안한다.

<경성일보>

유진오: 어떤 것이 압류되는 것인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古川: 반사회적인 것, 반일본적인 것은 단연코 단속합니다. 그 이외 순문학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대개는 관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오: 결론까지 읽지 않고 압류하시면 곤란합니다.

古川: 공산주의 방식을 자세하게 쓰고 마지막 5, 6행에서 “즉 이와 같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식은 설령 결론이 좋더라도 주의 선전 효과를 고려하여 압류합니다.

유진오: 도중 단계가 나쁘더라도 결론이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古川: 그건 안 됩니다. 도중이 나쁘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林: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寺田: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끝)

비교: <문학계>

유진오: 도중 단계가 나쁘더라도 결론이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古川: 그건 안 됩니다. 도중이 나쁘다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林: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남은 얘기는 마시면서 합시다. 이 좌담회는 내지의 『문학계』에 실고자 합니다. 내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습니다. (박수)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계』 판본에서는 ‘내지’측 참석자를 제외한 참석자에게는 각자의 직능을 괄호 안에 넣어 부연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내지’와 조선이라는 명백한 구도 속에 재조일본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만다.

한편, 『경성일보』의 판본에서는 참석자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참석자 : 村山知義(소설가), 林房雄(소설가), 秋田雨雀(문학자), 장혁주(소설가) Ⅱ 辛島驍(城大조교수)

“조선어가 지닌 맛, 연혁” 등의 이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6) 古川는 채만식의 단편 「민족의 죄인」에서 ‘김군’이 윤에게는 “패전을 통해 본 일본인의 민족 기질”에 관해 써줄 것을 청탁하면서, 일본이 항복한 후 “무엇이냐 고천(古川) 이놈은 함복지사루 갔다 게서 붙잡힌 채 경찰서 고쓰까이(심부름-인용자)질을 하구 있더라구?”라며 패전 후 ‘비굴한 일본인상’에 관해 글을 써줄 것을 다시금 부추기는 장면에서도 언급된다. 실제 패전 당시 古川는 총독부 도서과장과 정보과장을 지내고 함복도지사로서 근무했다.

7) 두 판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 이 古川의 발언은 각 텍스트의 것보다 길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발언을 각 매체가 의도에 따라 축약 발췌한 것이며, 가장 큰 차이라면, 『경성일보』 쪽은 “조선의 문예계는 총독정치 이후 눈부신 발달을 이루”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린 반면, 『문학계』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량면에서는 더 길다는 점이다.

Ⅱ 古川兼秀(총독부도서과장) Ⅱ 정지용(시인), 유진오(보성전문교수), 임화(평론가), 이태준(소설가), 김문집(평론가) Ⅱ 寺田瑛(본사학예부장)

『경성일보』는 본사측 寺田 이외에는 ‘내지’측과 조선측 참가자 사이에 재조일본인 명단을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그 중 오식이겠지만, 6차례에 걸친 연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진의 이름은 계속 누락되었다.) ‘본사학예부장’이라고 寺田의 이름을 명기하고 좌담회의 제목 옆에는 ‘본사 주최’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좌담회의 주최가 경성일보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조일본인의 자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계』와 달리 ‘내지’측 참석자들에게도 각자의 직능을 표시한 것도 그들을 상대화하는 의미에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은 학계(혹은 문학계)의 幸島, 정관계(政官界)의 古川, 그리고 언론계의 寺田으로 참가 자격을 변별 가능케 함으로써 『문학계』에서처럼 자신들을 집단화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교정하려는 무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문학계』의 동인인 林, 村山 두 분을 비롯해 秋田, 장혁주 씨 등이 경성에 오셨기에 여기에 조선의 문화인에게 모임을 부탁”(강조점-인용자)했다는 寺田의 모두 발언에서와 같이 ‘부탁’의 역할을 경성일보가 했다면, 그 대상은 ‘내지’측을 상대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조선의 문화인’ 즉 인종적 기준을 초월한 식민지 조선의 문화(지식)인이기 때문에 幸島와 古川의 존재가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좌담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텍스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두 텍스트의 제목이 각각 ‘조선문화의 장래’(『문학계』)와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경성일보』)인 것은 좌담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좌담의 진행은 대략 ‘조선문단의 현황→추향전 공연을 계기로 한 연극 현황→창작언어의 문제→조선 문화 전반(및 검열)의 현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성일보』에서는 ‘연재’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비중이 병렬적 관계로 구성된 반면, 『문학계』에서는 창작언어의 문제, 즉 ‘내지어’ 창작을 장려하는 장에 비중을 두고, 장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⁸⁾

또한 “내지에서는 조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문학계』)라고 한 林의 모두 발언이 『경성일보』에서는 “내지의 작가들은 거의 조선에 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는 좌담회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질문자-답변자’의 구도로 좌담회가 진행될 것이며, 이 결과 조선문화에 대해 무지한 ‘내지’에 소개해주는 시혜를 베푸는 장이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성일보』에서는 “내지의 작가들”만이 조선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⁹⁾ 재조일본인들(특히 총독부 관료들)은 누구보다 조선에 대해 잘 아는 위치에서 조선 통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자임하며, 그 실정(失政)에 대해 비판이라도 하면 조선의 실정(實情)에 대해 ‘무지’한 소치로 역비판하곤 했다.

8) 『문학계』 텍스트에서 “제목에 ‘현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조선문화의 ‘과거’에 주목하는 종주국 비평가들의 관심과 좌담회를 ‘현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피식민자의 시도 사이의 상이한 욕망들의 의미를 숙고하는 유용한 실마리 노트”를 했다고 권나영은 지적한다.(권나영, 215쪽) 하지만 문학잡지와 자본, 국가권력 등의 힘이 작동하는 재현의 문제를 통해 이 좌담회의 구도를 살펴보면, ‘내지’ 문학인과 ‘피식민지’ 문학인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내지’ 문학인(『문학계』)과 식민자(『경성일보』)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9) 이런 차이들은 여러 곳에 보이는데 가령 “총독부에서 너무 조선의 잡지를 장려하지 않는 경향”(『문학계』)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김문집의 발언은 “총독부의 의향 등이 있어서”(『경성일보』)라고 되어 있거나, 잡지 『삼천리』가 역사가 오래 되어 7, 800명의 독자가 구독한다는 발언은 생략되어 있거나 하는 점이다. 권나영은 이러한 ‘내지’ 문학인들의 무지의 인정이 『문학계』에서는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좌담회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수사라고 지적하였다.(권나영, 앞의 글, 216쪽)

기본적으로 이 좌담은 즉흥적인 이벤트였다. 그 즉흥적인 상황은 ‘내지’ 문학자들의 무의성마저 느끼게 만들었다. 이는 ‘내지’ 문학자들은 조선(어)문학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는 사실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한 마디로 ‘내지’ 문학자들의 조선(어)문학에 대한 무지가 즉흥적인 연출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¹⁰⁾

이 좌담회는 “이미 우리들은 이렇게 제군들과 좌담회를 하더라도 의미가 통하게”(林) 된 상황, 즉 일본어로 소통되는 장이었다. 그런데 그 좌담의 주요 토픽은 ‘내지’ 작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지의 조선(어)문학이었다. 조선(어)문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조선 문예의 전반을 토픽으로 다루는 이 모순된 ‘일본어’ 이벤트에서 초기에는 ‘내지’ 문인들이 조선 문화계의 상황을 묻고 조선인들이 답변하는 구도로 좌담이 진행되었으나, 점차 그 구도는 무너져간다. 조선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조선인들은 『문학계』 작가들을 ‘내지의 선배들’이라고 호칭하며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조선 문화계에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에 대한 조롱처럼 읽히기도 한다.

3. ‘국어’와 ‘내지어’의 사이

이런 참석자의 구도 차이를 전제로 하여 여기서는 창작언어의 문제를 다룬 좌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화제는 장혁주의 발언 중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말에서 출발한다. 그는 “임화 군, 과거의 조선, 현재의 조선을 제재로 한 희곡을 내지의 연극계에서 상연하는 것과 또 하나 조선어로 된 것을 내지어로 번역하거나 각색해서 내지인에게 소개한다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어 극단이 조선어 연극을 내지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지어로 쓴 「춘향전」을 했던 거지요.”(『문학계』, 이하 강조점-인용자)라고 발언한다. 하지만 조선인 참석자 모두가 “어렵다”(유진오), “삼문(三文)의 가치도 없다”(김문집), ‘작품 고유의 맛 상실’(임화), “내지역(譯)으로 해서는 다른 춘향전”(김문집)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제히 반론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각각의 매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이태준: 秋田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앞서 조선어로 쓰건 내지어로 쓰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들로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론과는 조금 다르지만 질문드립니다. 내지의 선배들 쪽에서는 우리 조선의 작가가 조선어로 쓸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지요, 혹은 내지문으로 쓸 것을 그 이상으로 희망하고 있는지요?

秋田: 우리 작가의 요망은, 그리고 대중의 요망으로서 즉 대조(對照: 對象의 오식인 듯-인용자)를 대중에 둔 작가로서는 내지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문학계』)

비교: 『경성일보』

이태준: 秋田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앞서 조선어로 쓰건 국어-내지어로 쓰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들로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론과는 조금 다르지만 질문드립니다. 내지의 선배들 쪽에서는 우리 조선의 작가가 조선어로 쓸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지요, 혹은 내지문으로 쓸 것을 그 이상으로 희망하고 있는지요?

10) 권나영이 지적한 “식민지의 맥락에서 좌담회는 너무나 꺾고 불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친밀하고 격식이 없다는 가상과 사실 ‘그대로’ 재현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는 그 형식 자체가 명사들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이 불안정한 시대에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실로 개방적인 교류와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했다”는 것은 기사로의 재현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겠다.(권나영, 앞의 글, 211쪽)

秋田: 뭐라고요? 잘 들리지 않는데요……
 임화: 조선의 사람은 내지문으로 쓰는 편이 좋을지, 조선문이 좋을지입니다.
 秋田: 우리 작가의 요망, 그리고 대중의 요망으로서 즉 대상(對象)을 대중에 둔 작가로서는 국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위의 인용문에는 다소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문학계』에서는 조선어에 대응하는 일본어를 지칭하는 곳에 대체로 ‘내지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경성일보』는 ‘국어’로 표현하고 있다. 동일 인물의 동일한 발언이 그렇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좌담회장에서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좌담회장의 실제 발언을 그대로 사용했건 그렇지 않건 그건 모두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문학계』는 ‘내지어’이고, 『경성일보』는 ‘국어’였을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국어’와 ‘내지어’라는 기호 각각의 정치적 의미가 달랐다는 점이다. 『경성일보』에서 사용한 기호, 즉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의 반포 이후 ‘국어’ 상용이 법제화된 조선에서의 ‘국어’란 그 자체로 ‘일본 국가의 표준어’ 이상의 정치적 개념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민족 차이보다 언어 차이를 통해 교육대상(제도)의 차이를 명문화한 것은 차별을 근간으로 한 정책이지만, 이는 ‘국어’ 바깥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제3차 교육령은 그와는 달리 국민의 일체화라는 맥락에서 차이를 소거하려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일체화는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어’는 단일하며, 그 바깥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식민본국에서 ‘국어’라는 표현은 ‘만세일계의 국체’의 전통과 결합한 정신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개념을 함의한 것이다. 이런 논리의 근간에는 민족과 언어의 일체성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럴 때 피지배민족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단, ‘국어’라는 기호가 식민본국에서는 그 정치성을 은폐하고 언어를 자명화하며 자연화하는 것이었다면,¹¹⁾ 식민지에서의 ‘국어’는 민족과 언어의 일체성을 부정하는 인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담회에서 선의와 시혜의 차원에서 표현된 ‘국어’라는 기호는 그 자체로 어폐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학계』의 ‘내지어’라는 기호는 민족과 언어의 일체성이라는 ‘국어’를 자연화하는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국어’가 조선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할 뿐만 아니라, ‘내지’에서는 제국언어의 스펙트럼 속에서 조선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선의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앞의 인용문의 국면①로부터 일본어와 조선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자.

발언자(날짜는 경성일보 기준)	『문학계』	『경성일보』
①秋田<12.6>	조선문, 내지어	조선어, 국어
이태준	내지어	국어 - 내지어
	조선어, 내지문	조선어, 내지문
임화	<소거>	내지문, 조선문
秋田	내지어	국어
村山	국어(보급), 내지어	국어(보급), 국어
林	내지어	국어
②秋田	번역 발언	
村山	내지어-조선어	국어-조선문
이태준	내지어-조선의 문자	국어-조선문
③林<12.7>	아일랜드문학의 예-조선인의 고집 발언	
林	내지어	내지어

11) イ・ヨンスク, 『國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1996, 275-276쪽 참조.

村山	조선어-내지어	조선문 - ×
④村山 등 퇴장 후		
유진오	내지어	내지어
林	내지어	내지문
⑤古川 발언		
林	내지어	내지어
⑥이태준-林<12.8>		
林	내지어	내지어
【비고】辛島<12/2>	조선문-내지어	조선문-내지어

앞서도 지적했지만, 『문학계』의 경우는 거의 일관되게 ‘내지어’를 고수하고 있다. 잡지 특성상 혹은 村山 혼자서 수정한 탓인지 『경성일보』에 비해 뚜렷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성일보』의 경우는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에 따라 ‘국어’에서 ‘내지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어쩌면 각 매체 편집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편집 의도가 반영되지 못한 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다.

①의 국면은 앞의 인용문에 앞선 부분이기도 한데 秋田의 발언에 대한 이태준의 질문 상황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다. 秋田은 ‘조선문-내지어’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 질문한 이태준은 ‘조선어-내지문’이라고 발언한다. 한편, 『경성일보』에는 秋田의 발언이 ‘조선어-국어’로 되어 있으나, 이태준의 발언 부분은 동일하다. 물론 이 또한 좌담회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태준의 발언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발화 내용 그대로인 듯하다. 秋田의 발언을 받아 발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조선문’을 ‘조선어’로, ‘내지어’를 ‘내지문’이라고 대응해 발언했을까. 秋田의 발언에서 언어=‘내지어’란 생득적이고 본원적인 것이며 문자=‘조선문’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되었을 터인데, 이태준은 거기에 대응하려는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문학계』에서는 소거되었지만, 임화가 이태준의 질문을 재차 秋田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지문-조선문’이라 수정한 것도 그런 상황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재조일본인사회의 지식계 내지는 문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辛島는 그의 드문 발언 기회에도 불구하고, 【비고】로 제시한 것처럼 ‘내지어’와 ‘조선문’이라는 구분 의식이 분명하다. 다른 이들이 ‘조선문’이라 사용한 의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조선문’의 작품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내지어’로 번역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는데, 이 때 ‘조선문’은 번역의 대상이며 번역됨으로써 비로소 독자를 획득할 작품이 되는, 본질적으로 뭔가가 결여된 부정확한 존재이자 불안정한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렇게 볼 때 앞서 이태준의 ‘조선어-내지문’의 발언은 ‘발화 주체의 입장=조선어를 생득한 자의 입장’에서 ‘내지문’을 대상화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②, ③, ④의 국면에 있는 일본인의 발언 속 ‘조선문’은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辛島의 발언 의도와 동일하게 읽힌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경성일보』 텍스트에서만 확인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문학계』에서의 ‘내지어-조선의 문자’라는 이태준의 발언이 ‘국어-조선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기까지 하다. 독자, 자본, 권력 등이 우위에 있는 ‘국어’로 번역되거나 창작될 때야말로 ‘조선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결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혹은 강요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③, ④, ⑤, ⑥에 가서는 『경성일보』가 ‘국어’라고 했어야 할 부분에 모두 『문학계』와 동일하게 ‘내지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경성일보』에서 ‘국어’가 ‘내지어’로 바뀌는 일관성의 결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경성일보』 편집진의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내지어’=내지인과 ‘국어’=조선의 사이에서 동일성/비동일성의 존재적 혼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²⁾

4. 좌담회 이후-재조일본인의 입장에서

이 좌담회는 지극히 즉흥적으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향후 ‘전환기’ 조선 문학계에 나타날 징후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조선(어)문학이 ‘내지’에 소개되거나 조선작가의 일본어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일어난 일본문단의 ‘조선문학 붐’이라 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경성좌담회에서 알 수 있듯이 ‘내지’ 작가가 조선문학에 대해 알고자 했던 욕구와 조선작가들이 ‘내지’에 조선문학을 알리고자 했던 욕구가 합치된 결과였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 조선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1939년 10월 조선문인협회의 발족이었다. 古川가 “작년 만들어진 조선문예회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경성일보』)고 하고, “커다란 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가능한 한 원조”(『문학계』 판본)하겠다고 좌담회에서 약속했던 사실은 상기할 만하다.¹³⁾ 20여 년 동안 조선에서 문학을 하면서도 조선측의 문단과 평단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杉本長夫의 말처럼¹⁴⁾ 조선문인협회는 ‘내선인’의 새로운 만남의 장이었고 감정 교환의 장이었으며, 조선 내 ‘내선(內鮮)’문인의 단일한 조직이었다. 또한 林가 “이번 사변에 조선인의 문사가 종군하도록 총독부에 청원”하겠다고 했던 우발적인 발언이 실제 1939년 3월 ‘황군위문작가단’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일명 ‘조선문단부대’라 불린 이 작가단은 조선문인 50여명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갖고 후보와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다.¹⁵⁾

한편, 식민본국에서는 문예춘추사의 『모던일본(モダン日本)』이 1939년 11월에 임시증간호로서 ‘조선판’을 발간하였다. 조선문인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발간된 이 ‘조선판’은 馬海松의 “수년간 갖고 있던 계획이 결실을 맺은” 기획이었다.¹⁶⁾ 이 잡지는 이효석, 이태준, 이광수의 소설과 주요한과 김기림 등의 시를 번역해 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담은 온갖 화보를 비롯

12) 『문학계』측은 ‘내지어’라는 표현을 일본어로의 번역과 창작이라는 주제에 맞게 문학어에 한정하여 쓰고 있는 반면, 『경성일보』측은 애초 문학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후반부부터 일본어로의 번역과 창작이라는 주제가 분명해지면서 『경성일보』도 ‘내지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싶다.

13) 1937년 5월에 조직된 조선문예회는 총독부의 학무국장 富永文一과 사회교육과장인 金大羽가 주도하여 이광수, 최남선, 현제명 등 조선인 명망가와 경성제대 교수 高木市之助, 佐藤清를 비롯해 歌人 鎌田沢一郎 등 내지인 측의 문예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총독부 비호 하”의 단체이다.(橫矢武男, 『朝鮮文藝會に對する是々非々の所感』, 『朝鮮行政』, 1937. 7. 46쪽) 이렇듯 관주도의 단체였던 점 이외에 특이한 점은 一部(내지인)와 二部(조선인), 즉 민족 혹은 사용 언어를 기준으로 나눠 “문예에 관한 연구 조사를 거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교화 방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사회교화에 부합하는 작가(作歌)를 작곡, 레코드로 만들고, 문예영화를 작성할 방침”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文藝研究に教化作歌や映畫も製作—一流作家, 作曲, 音樂家らが朝鮮文藝會を創立』, 『大阪毎日新聞』, S12. 4. 27.) 그런데 『인문평론』의 기사는 일개 “유행가 제작 단체”에 불과했던 ‘조선문예회’의 전철을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萬一文學를 豊富히 하지 않고 문학을 진보시키지 않고 나팔과 북만으로 문인협회를 살리랴 한다면 그는 청년단원이지만 문인협회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다.(張江, 『葛秋話』, 『인문평론』, 1939. 12. 91쪽.)

14) 杉本長夫, 『半島文壇と內鮮一體』, 『朝鮮』, 1940. 3. 74쪽.

15) 일명 이 ‘문인부대’는 실제 1939년 4월 15일에는 조선신궁에 참배한 후 경성역에서 북행열차를 타고 김동인, 박영희, 임학수 3명이 전선으로 파견되었다.(『价川官民合同, 皇軍慰問會組織』, 『동아일보』, 1937. 8. 5./『朝鮮文壇部隊 候補, 實行委員選出』, 『동아일보』, 1939. 3. 16.)

16) 菊地寛, 『朝鮮版へのことば』, 『モダン日本-朝鮮版-』, 1939. 10. 73쪽.(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 『일본 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어문학사, 2007)

해 소설, '조선독본', 수필, 시국에 관한 글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실어 조선 안내서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잡지의 앞쪽에 배치된 3편의 '내지' 작가의 소설, 즉 浜本浩의 「여수(旅愁)」, 加藤武雄의 「평양」, 大仏次郎의 「추억(面影)」은 모두 조선 여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이 '조선판'을 '대표'했다는 사실은 조선 내 내지인 문단(특히 소설)이 '빈곤' 혹은 '부재'하다고 판단한 편집 의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을 보여주거나 말하거나 혹은 회상하는 이 '조선판' 안에서 좌담회와 관련한 글 중 하나는 바로 辛島의 「내지인으로서(内地人として)」라는 제목의 글이다. 좌담회 자리에서 그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글은 그의 침묵의 의미를 보여주는 듯하다. 우선 제목 속의 '내지인'이라는 용어는 그 발화 대상인 내지인에 대해서 그들과 다른 '내지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그 용어를 사용해 (조선에 와 있는) '내지인'이 (식민본국의) 또 다른 '내지인'에게 발화하는, 화자=재조일본인과 청자=일본인의 관계와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성제대 '지나어학지나문학' 조교수이자 조선문인협회 간사의 입장에서 그는 이 글을 통해 내지 문단이 조선 문학 혹은 문화 전반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조선에 사는 내지인에 대한 생활과 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¹⁷⁾ 조선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 사이에는 이 토지 특유의 생활이 부여한 뭔가가 있을 것이기에, "그런 친자(親子) 2대의 조선 생활의 감정은 토지 문학의 무언가에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문학의 길을 걷는 정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관심이 이 방면에 가져주길 바란다"는 것이다.¹⁸⁾ 하지만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그가 부끄럽게 여긴 것은 정작 "(조선 내-인용자)내지인 자신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생활을 천천히 천착하여 되돌아보거나 그 진실한 마음을 문학으로 표현하려 원했던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¹⁹⁾ 고(古)도자기에 대한 취향, 낚시, 야구, 오락영화, 마작을 즐기는 사람은 많으나, "자신의 생활 혹은 주위의 생활을 응시하여 그것을 문학-특히 소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²⁰⁾며 조선 내 내지인 문학의 빈곤을 고백하기도 한다.²¹⁾

만약 이 글이 경성 좌담회에서 辛島가 침묵했던 이유가 담긴 것이라면, 이는 좌담회에서 재조 일본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부재를 사후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좌담회에서 경성일보의 학예부장 寺田瑛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는 『문학계』 판본에서는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조선문인협회의 결성을 계기로 "內鮮에 걸쳐 교우"가 시작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이전에는 『경성일보』 학예면을 '조선 중심'으로 구성하려다 보니 "조선에 있는 문인은 극히 적었"던 상황을 지적했던 것처럼²²⁾, "조선에 관해서는

17) 寺島는 내지문단의 인사들과 좌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거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1938년 10월 일본의 신험극단이 「춘향전」을 경성에서 공연하기 위해 조선에 온 것을 계기로 내지문단의 林房雄, 村山知義, 秋田雨雀, 장혁주 등이 참석한 좌담회가 열렸다. (『朝鮮文化の将来と現在』, 『京城日報』, 1938. 11. 29-12. 8)

18) 辛島驍, 「内地人として」, 『モダン日本-朝鮮版-』, 1939. 10, 171쪽.

19) 위의 글, 같은 쪽.

20) 위의 글, 같은 쪽.

21) 그도 그럴 것이 『모던 일본』의 '조선판'이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작 조선 내 내지인 작가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菊地寛이 "조선에도 문단이 있고 많은 작가가 있는 듯한데 아직 그 작품을 접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발간의 취지에서 밝혔듯이, 이광수의 「무명」을 비롯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이태준의 「까마귀」를 번역해 실고, 주요한 등의 시 6편을 번역 소개해 비교적 조선(어) 문학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 외에는 조선의 풍물을 소개한 조선인의 수필과 "내지인이 알았으면 하는 것" 등의 문답형의 문장이 실렸지만 그 비중과 시사성은 내지인의 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내지인들의 글은 두 가지로 정리해 나눌 수 있다. '전쟁'과 '내선일체'와 같이 시사적인 내용의 글은 関屋貞三郎(중앙협화회 이사장)이나 塩原時三郎(학무국장) 등 조선 내 일본인 관료들에 의해 씌었고, 여행자의 관점에서 조선 풍물을 기록한 것은 대개 내지 출신자들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질문자=내지인’과 ‘답변자=조선인’이라는 구도 속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재조일본인(문화인)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던 『경성일보』 판본 좌담회의 편집 의도나 관점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문학계』 판본이 철저히 그들을 소외시킨 것과는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학계』와 『경성일보』에서 서로 좌담회를 게재한 사실 혹은 게재할 가능성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두 판본은 서로 다른 텍스트 만들기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조선인들이 좌담회에서 많은 발언은 했지만, 그 발언들이 ‘국어’ 혹은 ‘내지어’로 문자화=편집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들에게 경성 좌담회가 재조일본인과 ‘내지’문인들이 현시하는 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슬픈’ 처지를 확인하는 장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寺田瑛, 「東京時代・京城時代」, 『朝鮮』, 1944. 1, 63쪽.